

10/18(월) 욱기 묵상 7

욕기 4:1-11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기 1-2장에서 욱의 고난에 대한 서론 부분이 시작되고 3장부터 욱의 탄식, 4장부터는 욱과 친구들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욱은 아마도 이제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해 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욕 2:11, “그 때에 욱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욱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친구들도 욱을 위로해주기 위해 멀리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욕과 친구들의 논쟁

오늘은 욱기 4장을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전개되는 욱기 4장부터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욱기서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욱과 친구들의 대화 또는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욱의 친구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욱의 고난은 그의 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욱을 위로하기 보다는 그를 정죄하고 공격합니다. 욱과 세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총 세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사이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사이클

: 4-5장 엘리바스의 논쟁, 6-7장 욱의 논쟁, 8장 빌닷의 논쟁, 9-10장 욱의 논쟁, 11장 소발의 논쟁, 12-14장 욱의 논쟁

□ 두번째 사이클

: 15장 엘리바스의 논쟁, 16-17장 욱의 논쟁, 18장 빌닷의 논쟁, 19장 욱의 논쟁, 20장 소발의 논쟁, 21장 욱의 논쟁

□ 세번째 사이클

: 22장 엘리바스의 논쟁, 23-24장 욱의 논쟁, 25장 빌닷의 논쟁, 26장 욱의 논쟁

이처럼 욱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계속 이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논쟁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소발은 마지막 싸이클에서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욱도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을 듣는 입장에서 시작하지만 그도 친구들과 번갈아가며 상대방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9장에서 31장까지는 욱의 마지막 발언이 이루어지게 되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욱의 세 친구들보다는 경험이 많은 엘리후가 나타나서 네 번에 걸친 발언을 하게 됩니다.

□ 엘리후의 발언

: 32:1-22 엘리후의 등장과 모두 발언, 33:1-33 엘리후의 첫 번째 발언, 34:1-30 엘리후의 두 번째 발언, 35:1-16 엘리후의 세 번째 발언, 36:1-37:24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

마지막으로 욥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이 끝나서 나서 욥은 그토록 듣기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욥의 대화를 통해 욥은 결국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욥 42:5,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이는 욥이 하나님을 만나 해결과 함께 그동안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힘들었던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욥기서의 결말 내용과 함께 욥기서 42장의 모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 하나님의 발언과 욥의 발언 그리고 결론

: 38:1-40:2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 40:3-5 욥의 답변, 40:6-41:34 욥의 두 번째 발언과 욥의 답변, 42:1-17 욥기의 결말

욥기서는 욥과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와 논쟁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애가, 법적 소송, 찬양시, 패러디 등등 다양한 문학 장르와 형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하나의 문학 장르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 전체의 주제는 신정론 즉 무고한 자의 고통이 주요 주제이고 친구들과의 주된 논쟁을 통해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는 권선징악에 따른 신학과 사고 방식입니다. 욥기서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만약 자신들이 욥과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욥과 똑같은 충고를 들었다면 욥처럼 감히 참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설교와 교훈의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충고와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더 큰 아픔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과 위로가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여러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인도네시아의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을 신성 모독했다는 혐의로 어려움에 처한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신성모독법은 다수인 무슬림보다는 소수 종교인에게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모호하며 특히, 기독교인을 포함한 소수 종교인에게만 엄격한 신성 모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햄튼 2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